

# 대규모 인프라 지원을 위한 혼합재원 방식의 개발재원 확대방안 검토<sup>1)</sup> : EU Blending Framework를 중심으로

이성진 (KOICA 기획조정팀 대리)

제 I 장

개발협력 이슈

제 II 장

제 III 장

## 목차

### I. 서론

### II. EU 블랜딩 체계(Blending Framework) 분석

1. EU 블랜딩 체계 개요
2. EU 블랜딩 체계 증여수단
3. EU 블랜딩 체계 운영구조
4. EU 블랜딩 체계 기본 펀딩 구조
5. EU 블랜딩 체계 성과 및 한계점

### III. 시사점

주제어: 블랜딩(blending), 금융 추가성(financial additionality),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투자 증여(investment grant)

1) 동 자료는 현재 KOICA에서 수행 중인 개발재원 관련 연구에서 발췌하였음.

## I. 서론

2015년 기존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를 대체하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와 동 목표의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인 제3차 개발재원총회의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Addis Ababa Action Agenda, 이하 AAAA) 채택은 향후 국제개발협력분야의 주요 방향 및 주안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별히 SDGs에서는 상대적으로 사회개발 측면에 주안점을 두었던 MDGs와 달리 경제개발 또한 주요 축으로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및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목표 8번)을 강조하여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이하 SOC) 및 인프라와 개발도상국 내 고용 창출을 위한 기업 및 기업가 양성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이하 WEF)에 따르면 매년 약 3.7조 달러의 전 세계 인프라 투자 수요에 비해 약 1조 달러의 공급 부족을 보이고 있으며 2030년에는 그 차이가 14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sup>2)</sup>

이러한 인프라 수요 대응 및 ODA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은 개발재원 마련을 위한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와 이를 유도할 수 있는 기존 공적개발원조와 원조 시행기관들의 위험(risk) 경감 등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각국의 선진원조기관 및 개발은행 등을 위주로 보증(guarantee), 지분투자(equity) 등 혼합재원(blended fianance)의 다양한 유형 시도는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와 기존 공적개발원조의 획기적 확대가 어려운 상황 하에 민간재원 동원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OECD의 경우, 2015년 지속가능개발투자파트너십(Sustainable Development Investment Partnership, 이하 SDIP)를 발족하여 개발도상국 내 인프라 수요 해결을 위한 민간금융기관, 공여국 등 다양한 주체의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은 OECD DAC 국가 중 상대적으로 ODA 규모가 작고 저성장과 이에 따른 세수 확보가 제한적인 한국의 상황에서 그 시사점이 크다. 이에 따라 ODA 시행기관 및 부처 차원에서 혁신적 ODA 모델 및 민간재원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 및 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나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개도국 인프라 지원의 경우, 민간재원 동원을 위한 효율적인 메커니즘과 무·유상 원조의 효율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고에서는 개발도상국 인프라 지원을 위한 다양한 개발재원 모델 중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의 블렌딩 체계(blending framework) 사례 분석을 통해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민간재원을 위한 다양한 수단과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필요 조사사항 및 검토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Third Global Infrastructure Investment Index 2016, ARCADIS, p.2

## II. EU 블랜딩 체계(Blending Framework) 분석

### 1. EU 블랜딩 체계 개요

EU 블랜딩 체계(EU Blending Framework)는 EU의 대외 원조 수단 중 하나로 EU의 대외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개발도상국 대상 EU의 무상원조(grant)를 공여국 및 개발은행의 차관(loan) 또는 공공 및 민간 금융기관의 지분투자(equity)와 연계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다. 동 방식은 EU 다년간 금융 체계(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이하 MFF) 2007-2013<sup>3)</sup>에서 처음 제시된 이후 무상원조 제공을 통한 해당 프로젝트의 총 비용 감소 및 위험(risk) 경감을 통해 투자 및 프로젝트 수행의 추가적 재원 동원을 위한 전략적 역할로 확대되어 왔다.

2011년 채택된 EU 개발정책 기본 문서인 'The Agenda for Change'에서는 “추가적인 재원의 레버리지(leverage)와 개발 영향력(impact) 향상을 위해 선정된 분야 및 국가를 대상으로 증여와 차관의 조합과 기타 위험 경감 메커니즘과 같이 기존 또는 새로운 금융 수단의 활용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동 문서에서는 ‘차별화(differentiation)’ 개념을 통해 중소득국(MICs)에 대한 EU 무상원조 지원을 저소득국의 빈곤감소를 위해 일정부분 전환하고 블랜딩 체계를 통한 중소득국 지원을 확대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실제로 EU 블랜딩 퍼실리티(facility)를 통한 ODA 지원은 2007년 1500만 유로(전체 0.2%)에서 2012년 4억 9천만 유로(전체 4%)로 증가하였으며, 아래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향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표 1> EU 블랜딩 퍼실리티별 배정액

(단위: 백만 유로)

지역 블랜딩 퍼실리티명	2014-2020 배정액(예상치)	2007-2014 배정액
NIF	2,100	1,045
ITF/AiIF	1,000	536
WBIF	700-1,000	310
LAIF	320	190
AIF	320	68
IFCA	140	82
CIF	135	35
IFP	20	9
<b>총합</b>	<b>약 5,000</b>	<b>2,275</b>

출처: Sida (2015)

3) 다년간 금융체계(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MFF)는 EU의 장기 지출 계획으로 EU의 집행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동의된 지출한도 내에서 금융(financial) 프로그램 및 예산 원칙에 대한 체계를 의미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C)는 2007년 블랜딩(blending) 모델 도입 이후 9년간 270개 이상의 블랜딩 해외프로젝트를 통해 약 27억 유로 상당의 EU 무상원조가 230억 유로 상당의 유럽 금융기관 및 지역개발은행의 차관을 동원하였으며 EU 협력 개발도상국 대상 약 500억 유로의 투자 유인에 기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sup>4)</sup> 동 기간 동안 진행된 사업 중 지원 비중은 에너지 및 교통 인프라 부분(약 60%), 오폐수 처리, 식수, 주거 보전 등 사회 인프라 부분(약 27%), 지역 생산성 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중소중견기업 지원(약 13%) 순으로 배분되었다.

이러한 블랜딩 모델은 EU의 대외정책 및 개발협력정책과 협력 개발도상국의 수요에 따라 프로젝트의 금융적 지원에 집중하여 지역별, 국가별, 테마별 8개의 퍼실리티(facility)로 구분되어 운영 중이다.

〈표 2〉 EU 블랜딩 퍼실리티별 개요

해당 펀딩체계	퍼실리티명	설립연도	퍼실리티 지원(증여)액수 및 총 실현 투자액수	지원 프로젝트 수 (2010-2015 기준)
Development Cooperation Instrument(DCI) Blending Framework	Latin America Investment Facility(LAIF)	2010	2,32억 유로/6.9억 유로 (2010-2015 기준)	28
	Asia Investment Facility(AIF)	2012	8,900만 유로/26억 유로 (2010-2015 기준)	18
	Investment Facility for Central Asia(IFCA)	2010	1,19억 유로/8.3억 유로 (2010-2015 기준)	22
European Development Fund(EDF) Blending Framework	Africa Investment Facility(AiIF) and EU-Africa Infrastructure Trust Fund(ITF)	2007	6,55억 유로/92억 유로 (2010-2015 기준)	77
	Caribbean Investment Facility(CIF)	2012	6,860만 유로/5.41억 유로 (2012-2015 기준)	9
	Investment Facility for the Pacific(IFP)	2012	1,000만 유로 (2012-2014 기준)	2
European Neighbourhood Instrument(ENI) Blending Framework	Neighbourhood Investment Facility(NIF)	2008	10.72억 유로/250억 유로 (2008-2014 기준)	95
Instrument for Pre-Accession Assistance(IPA) Blending Framework	Western Balkans Investment Framework(WBIF)	2009	4.73억 유로/78억 유로 (2009-2015 기준)	139

출처: 유럽집행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여 저자 작성

4) 상세내용은 유럽집행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http://ec.europa.eu/europeaid/policies/innovative-financial-instruments-blending/blending-operations\\_en](http://ec.europa.eu/europeaid/policies/innovative-financial-instruments-blending/blending-operations_en)) (접속일: 2016.09.20)

## 2. EU 블랜딩 체계 증여 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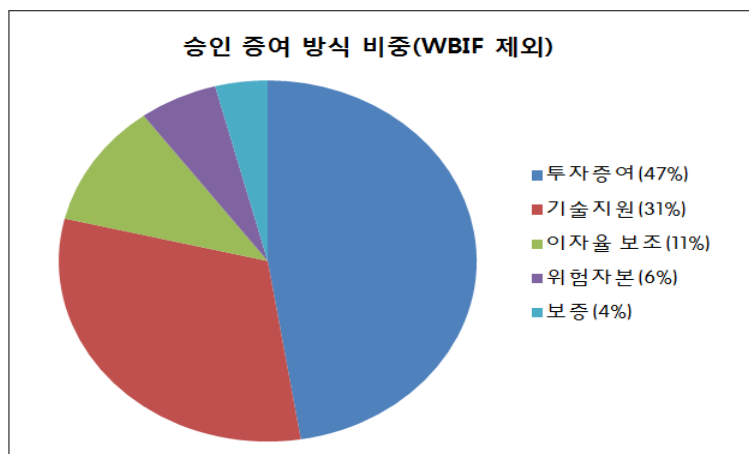
EU 블랜딩 체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EU의 증여(grant)를 통해 개발협력 대상국의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추가재원 동원이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EU는 무상원조의 주요 기능을 △투자 증여 및 이자율 보조(investment grant & interest rate subsidy), △기술 지원(technical assistance), △위험자본 지원(risk capital), △보증(guarantees)으로 크게 5가지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먼저 투자 증여 및 이자율 보조 방식은 해당 개발도상국의 프로젝트 총 비용 경감을 위해 일정 금액을 증여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이하 EIB),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이하 ADB), 일본 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JICA)로부터 차관을 통해 2006년부터 진행된 조지아 동서 고속도로 개선 및 보수 사업의 경우, 프로젝트 총 비용이 19억 유로였으며 이 중 NIF는 투자 증여로 2억 유로를 지원하여 프로젝트를 현실화한 바 있다.

기술지원의 경우, 특히 프로젝트 초기에 프로젝트 단계 시, 타당성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 및 해당 분야 역량 강화 등의 지원을 의미한다. 위험자본은 EU의 동쪽 인접 협력국을 중심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공공 및 민간의 채권투자 및 지역 금융기관을 통한 장기 차관 제공을 의미한다. NIF와 WBIF의 경우 후순위 채권 방식을 활용하여 위험을 경감하고 이를 통한 민간 상용 투자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5년까지 승인되어 제공된 상기 수단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투자 증여(47%)이며 기술지원(31%), 이자율 보조(11%), 위험자본(6%), 보증(4%) 순으로 지원되었다.

〈표 3〉 EU 지역 블랜딩 증인 증여 방식 비중



출처: Sida (2015)

제 I 장

개발협력 이슈

제 II 장

제 III 장

### 3. EU Blending Framework 운영체계

2012년 EU는 블랜딩 체계의 기능 조정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EU 대외협력 블랜딩 플랫폼(EU Platform for Blending in External Cooperation, 이하 EUBEC)'을 설립하였다. EUBEC는 블랜딩 체계와 관련된 EU 회원국 및 협력국간의 정책을 조율하고 핵심 원칙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EU 대외정책과 블랜딩 지원의 연계성 강화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럽대외관계청(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이하 EEAS), EU 회원국,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으로 구성된 정책그룹(policy group)에 의해 운영되며 7개 기술그룹(technical group)이 지원하고 있다.

EUBEC 하에 각 지역별 블랜딩 퍼실리티는 WBIF를 제외하고는 △전략이사회(strategic board), △집행이사회(operational board), △금융기관 그룹(Finance Institutions Group, 이하 FIG)의 3개 층위구조(three-tier structure)를 통해 운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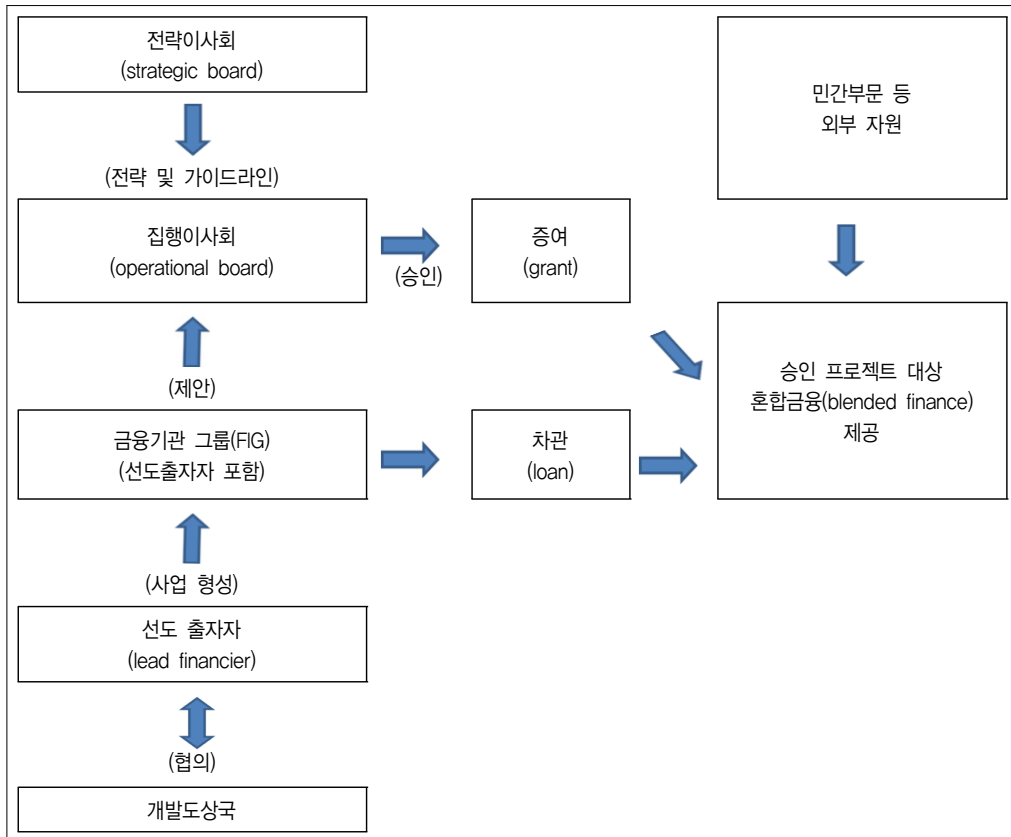
먼저 전략이사회는 Steering Committee로도 지칭되며 EU 집행위원회, 공여국 및 수원국 인사로 구성되어 각 퍼실리티의 전략적 목적을 결정한다. 이러한 전략은 크게 EU의 각 지역의 정책과 연계되어 지정되며, 예를 들어 NIF의 경우 EU의 인접지역 정책(neighbourhood policy), AIF는 EU-아시아 협력 지역전략(the regional strategy for EU-Asia co-operation)과 연동된다. 이러한 주요 대외정책과의 연동성 및 해당 수원국 관련 인사의 전략이사회 참여는 각 퍼실리티에 대한 일관성있는 정책적 관리가 가능하며 개발협력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략이사회에 의해 설정된 각 퍼실리티의 목적 및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금융기관 그룹인 FIG는 예비 프로젝트를 집행 이사회에 제안하고 있다. WBIF의 경우에는 해당 개발도상국이 프로젝트를 직접 제안이 가능하나, 이를 제외하고는 주로 선도 출자자(lead financier)를 중심으로 해당 개발도상국과의 협의 후, 해당 금융기관의 자체 평가 기준에 따라 프로젝트 형성하고 필요한 증여의 종류와 액수를 제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더불어 최종 승인 이후, 프로젝트 수행과 모니터링 및 성과 측정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FIG는 기술조직(technical body) 또는 프로젝트 출자자 그룹(Project Financiers Group, 이하 PFG)로도 지칭되며 각 퍼실리티별 정규 회원으로 참여 중인 유럽 지역개발은행 및 원조시행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중 4개 기관(EIB, AFD, KfW, EBRD)에 의해 대부분의 차관(전체 98%, 2007-2013년 기준)이 제공되고 있다.

집행위원회의 경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의장직을 수행하고 유럽대외관계청 및 EU 회원국들의 투표에 따라 FIG가 제안한 프로젝트에 대한 증여(grant)의 승인을 담당하며 승인 이후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에 의해 최종 증여 지원 대상 프로젝트를 채택한다.

〈표 4〉 EU 블랜딩 프로젝트 승인절차



출처: European Paliament (2012) 및 ECDPM (2013)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4. EU Blending Framework 기본 펀딩 구조

각 지역 블랜딩 퍼실리티 증여는 EU의 4개 대외 금융기구(EDF, ENI, DCI, IPA)와 EU 회원국의 직접 기부금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대외 금융 기구를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유럽 개발 펀드(European Development Fund, 이하 EDF)는 1957년 창설되어 경제 및 사회·인간개발 및 지역 협력·통합 활동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2014-2020년간 305억 유로가 배정되어 있다. 유럽근린파트너십기구(European Neighbourhood Instrument, 이하 ENI)의 경우, 유럽근린정책(ENP) 지원을 위해 2007년 설립되었으며 2007-2013년 기준 112억 유로가 배

제 I 장

개발협력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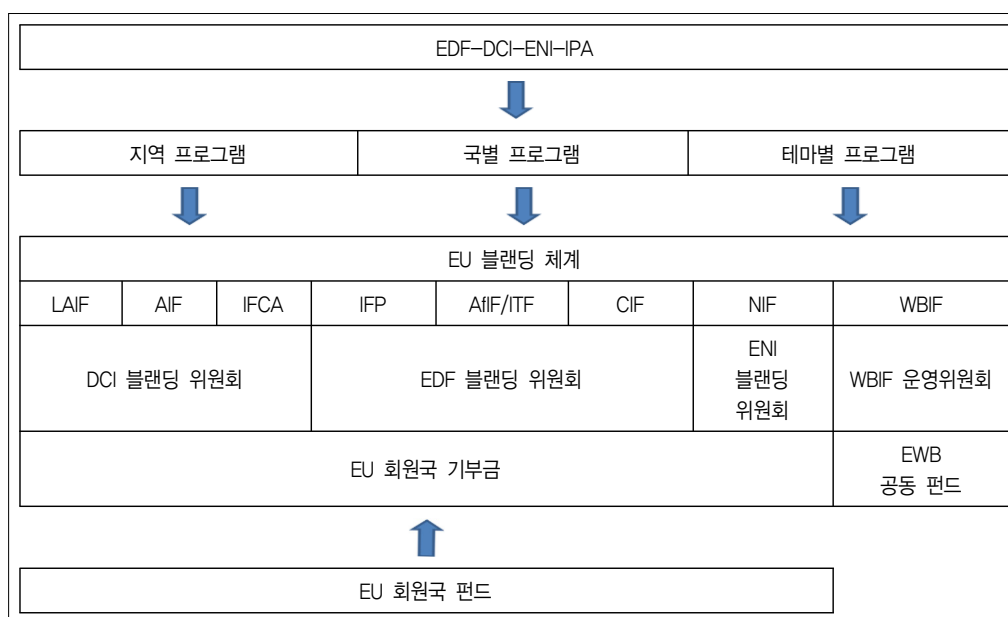
제 II 장

제 III 장

정되었다. 다음으로 개발협력기구(Development Cooperation Instrument, 이하 DCI)는 전 세계 EU 협력 대상 47개국을 대상으로 인간 개발을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개발과 재해 및 분쟁 등을 주요 분야로 2014-2020년 196억 유로를 지원 중이다. 마지막으로 사전가입지원기구(Instrument for Pre-Accession Assistance, 이하 IPA)는 주로 동유럽국의 EU 가입 희망 대상국을 상대로 정치·경제적 개혁 지원 등을 주목적으로 하며 2014-2020년간 117억 유로가 배정되어 있다.

하기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8개 지역 블랜딩 퍼실리티는 이러한 4가지 금융 기구와 EU 회원국 펀드를 지역, 국별, 테마별 프로그램 분류 하에 소속되어 지원을 받고 있으며 각 해당 블랜딩 위원회에서는 EU 대외정책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각 퍼실리티의 조정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표 5> EU 블랜딩 체계 중여 자원 출처



출처: Sida (2015)

## 5. EU 블랜딩 체계 성과 및 한계점

EU 블랜딩 혼합 체계의 주요 목적인 동시에 기대효과는 중여와 차관의 혼합을 통해 제한된 ODA 재원으로 민간부분의 추가 자원 동원이며 규모의 경제 조성을 통한 인프라 프로젝트의 현실



화에 있다. 유럽 집행위원회(EC)는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이 동 체계의 금융 레버리지 효과를 증여를 통해 실현된 실제 프로젝트 총 투자 금액의 비율로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EC에 의해 공개된 현재까지의 가장 높은 레버리지 비율은 AIF의 1:30이다. 또한 투자증여, 기술지원 등 퍼실리티별 증여 기능은 프로젝트 투자의 현실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13년 시행된 NIF에 대한 2007-2013년 대상 독립 중간평가 역시 효과성 평가에서 블랜딩 체계의 투자 증여와 기술협력이 대체적으로 해당 프로젝트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동 기간 동안 NIF로 인한 레버리지 비율은 평균적으로 15.6으로 측정한 바 있다.

또 다른 EU 블랜딩 체계의 성과로는 EU 대외 및 지역정책과 연계한 조정체계 구축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소속된 공여국 및 금융기관간의 조화(harmonization)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더불어 각 지역 블랜딩 퍼실리티의 전략 위원회에 해당 개도국 인사 참여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주인의식(ownership)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한정된 ODA 재원을 활용하여 대규모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 실현을 통해 EU 개발협력의 가시성 향상의 기대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동 체계에 대한 개선점 또한 지적되고 있다. 먼저, EC가 제시하고 있는 증여와 총 투자액의 기계적인 비율 계산을 통한 레버리지 성과 측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U 의회의 연구 결과(EP, 2012)에 따르면 높은 레버리지 효과가 블랜딩 체계의 부재 시 다른 재원의 유사 역할 대체 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한 금융 추가성(financial additionality)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즉, 추가 자원 동원을 위한 블랜딩 체계의 필요성과 기존 EU ODA 및 금융기관들의 지원과 다른 차별성에 대한 측정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레버리지(leverage)와 추가성(additionality)의 구분 및 정확한 정의는 아직 국제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나 금융 레버리지 및 추가성을 측정하는 것에 가장 큰 주요 질문은 공적자금 투입의 부재 시 민간자본에 의한 투자 또는 프로젝트의 현실화 가능 여부이다(Bretton Woods Project, 2012). 즉, 이러한 질문에 대한 명확한 측정 및 답변이 어려울 시, 앞서 살펴 보았듯이 기존 투자자가 활발한 상위 중소득국을 대상으로 교통, 에너지 등 특정 분야에 대한 투자는 자칫 민간자본에 대한 공공자본의 보조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미 공적자금의 투입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민간자본의 투자가 성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EU 블랜딩 체계에 대한 여러 비판은 동 사항에 대한 공개된 평가 및 측정방식의 부재에서 비롯되고 있다.

더욱이 현재 공개된 관련 자료상에서는 블랜딩 체계를 통해 실제로 동원된 민간재원의 명확한 비중을 확인할 수 없다. Eurodad 보고서(EURODAD, 2013)에 따르면 2013년까지 실제로 동원된 민간재원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언급하며 결국 공공재원간의 레버리지 효과에 그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료 확인 및 민간재원 동원을 위한 블랜딩 체계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이러한 블랜딩 체계를 통한 인프라 프로젝트 제공 대상 및 이에 따른 시장 왜곡 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민간재원 유치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필연적으로 국가 위험도 및 수익률이 유리한 중상위소득국 대상 프로젝트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중상위소득국 대다수 국가에서 이미 기존 상업차관 및 시장자본의 투자 등이 활성화 되어 있는 바, 이자율 보조 등을 활용한 공적자금의 투입은 자칫 시장왜곡 효과(distortion effect)와 이에 따른 기존 자금의 구축효과(crowding effect)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결국 이와 같은 우려는 앞서 지적된 금융 추가성 효과, 즉 블랜딩 체계 지원이 필요한 근거와 프로젝트 완료 이후 SDGs를 비롯한 개발협력 목표 달성과의 연계성을 명확히 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 IV. 시사점

비록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살펴 보았으나, EU 블랜딩 체계의 성과와 한계점은 우리에게도 향후 참고 또는 고려할 만한 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 개발재원 확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민간재원 동원을 통한 인프라 제공 방안으로 논점을 국한할 때, 무상원조 차원에서 그간 개발건설형 사업으로 시행해 온 개발도상국 인프라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가 실제 투자를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잠재적 투자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유상원조의 경우에는 기존 ODA 차관 예산과 차입금 등을 활용한 자체조달재원을 혼합하여 ‘저양허성 차관’, ‘준상업차관’ ‘보증’ 등의 다양한 개발금융 지원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사실상 EU 블랜딩 체계의 구성 즉, 증여와 차관의 혼합방식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은 아니며 그간 양다자 개발금융기관(DFIs)을 중심으로 인프라 지원을 위한 자체 차관과 기타 개발 기관의 증여와 함께 제공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왔고 EU 블랜딩의 경우, 소속 회원국 및 개발은행간의 체계 구축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과 다양한 증여 수단을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인프라 지원을 위한 민간재원 동원에 대한 범정부적 정책 검토 및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 한국의 무상원조의 다양한 방식 도입 및 무유상 연계 강화를 통하여 EU 블랜딩 체계의 구조 및 장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EU 블랜딩 체계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 또한 고려가 필요하다. 먼저 금융 레버리지 및 추가성에 대한 측정 방식 및 명확한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해당 개발도상국 인프라 실현

에 공적개발원조가 얼마나,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이해와 합의가 있을 시, 동 방식 적용 필요성의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 이에 대한 근거 마련 이후, 한국의 중점협력국을 위주로 각 국가별 특성 및 소득수준에 맞는 다양한 지원방식과 혼합형태, 민간재원 동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블랜딩 방식으로 실제 현실화된 프로젝트의 SDGs와 한국의 개발협력목표에 대한 기여를 명확히 측정할 수 있는 평가방법 및 지표 개발이 중요하다. 다양한 증여 기능 도입과 민간재원 동원, 혼합형태는 결국 궁극적으로 부족한 ODA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적 개발과 빈곤감소를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SDGs 달성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지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바, 인프라 실현의 최종 결과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 프로젝트의 실현을 통해 해당 개발도상국의 SDGs 달성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표 및 목적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제 I 장

개발  
협력  
이슈

제 II 장

제 III 장

### 〈참고문헌〉

- European Paliament. 2012a. "Blending Grants and Loans for Financing the EU's Development Policy in the Light of the Commission Proposal for a Development Cooperation Instrument(DCI) for 2014-2020". Brussels: European Parliament
- \_\_\_\_\_. 2012b. "The implication for the EU and national budgets of the use of innovative financial instruments for the financing of EU policies and objectives". Brussels: European Parliament
- EURODAD. 2013. "A dangerous Blend? The EU's Agenda to 'blend' public development finance with rovate finance". Brussels: EURODAD
- Evaluation for the European Commission. 2013. "Mid-Term Evaluation of the Neighbourhood Investment Facility under the European Neighbourhood and Partnership Instrument (ENPI) 2007-2013".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 ECDPM. 2013. "Blending loans and grants for development: An effective mix for the EU?". Maastricht: ECDPM
- Bretton Woods Project. 2012. "'Leveraging' private sector finance: How does it work and what are the risk?". London: Bretton Woods Project
- SIDA. 2015. "Mapping of EU blending". Stockholm: SIDA

유럽집행위원회 홈페이지: [http://ec.europa.eu/europeaid/policies/innovative-financial-instruments-blending\\_en](http://ec.europa.eu/europeaid/policies/innovative-financial-instruments-blending_en) (접속일: 2016.09.20)